

# INTAP MAGAZINE 3

## 연계 지문

수능특강 독서 13쪽

## 지문 키워드

공자, 맹자, 도덕적 관계, 책선, 성찰, 우정, 유교, 조선 유학, 송시열, 윤선거, 예송 논쟁, 예법, 왕권, 신권, 정치적 정당성, 유교 윤리, 도덕 실천, 사적 감정 배제, 학문과 정치, 충고, 자기반성, 권위, 도덕 공동체

## 확장된 키워드

덕 윤리, 의무론, 도덕 판단, 책임 윤리, 자기 수양, 정당성, 권위, 공공성, 이상주의, 유교적 정치관, 자기 성찰, 판단 정지, 타인의 오류 인식과 수용, 관계 윤리, 공동체 규범, 권력 관계, 위계 구조, 자기 객관화, 방어기제, 사적 감정 배제, 조선 후기 정치사, 예송 논쟁, 왕권 강화, 당쟁, 교화, 인격 교육, 덕 교육, 도덕 교육, 유교, 성리학, 도덕 교의, 주자학

---

## 도덕적 우정과 책선: 공자·맹자에서 조선 유학까지

친구란 무엇인가? 수천 년을 관통하며 이 질문은 도덕의 중심에 위치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는 형용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나 취향의 일치를 넘어, 서로를 도덕적으로 고양시키는 관계인가 하는 물음과 맞닿는다. 공자는 이를 명확히 한다. 『논어』에서 “충고하고 바르게 이끄는 것”이 친구의 본분이라 말한 대목은, 우정을 단순한 친밀감이 아닌 윤리적 실천의 장으로 본 대표적 예시다. 단지 말이 잘 통하고, 관심사가 겹치며, 불편함 없는 관계로서의 우정은 유교적 맥락에서는 피상적이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에게 바른 길을 걷도록 권면하는 ‘책선’의 실천에 있다.

공자의 이 관점은 맹자에 이르러 한층 강화된다. 맹자는 친구 사이에 서로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인간의 덕을 서로 북돋는 일이라 보며, 도덕의 완성을 위한 공동 실천의 장으로 우정을 정의했다. 다시 말해, 친구란 '함께 도덕적으로 나아가는 이'이며, 그렇기에 책선은 우정의 핵심 기제이다. 이때 책선이란 단지 훈계하거나 꾸짖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연대의 감각을 바탕으로 한 상호 향상 관계의 실천이며, 무엇보다 먼저 ‘자기 성찰’을 요한다. 올바른 책선은 자신의 도덕적 결핍과 이기적 의도 없이 수행되어야만 하며, 그 전제는 자아의 점검에 있다.

이는 단순히 윤리학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교 사회에서 친구 간의 책선은 ‘도덕적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이었다. 우정은 사적 관계이지만, 그 안에서 실현되는 책선은 공공 도덕의 유지를 위한 기제였다. 공자는 도덕은 ‘수기이안인’에서 출발한다고 했고, 맹자는 그것을 더 나아가 ‘치국평천하’의 기초로 보았다. 개인의 도덕이 우정 안에서 검증되고 실현되어야 사회 전체가 도덕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조선 유학자들에게도 이러한 책선은 일상의 도덕적 실천이었다. 조선 시대 유교 사회는 ‘예’와 ‘의’의 사회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이 속에서 친구란 단순한 인간적 유대가 아니라 ‘덕을 함께 닦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책선은 그 상호작용의 방식이었다. 한 사람의 도덕이 타인에 의해 유지되고, 다시 공동체 속에서 확산된다는 인식은 유교 윤리의 핵심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책선은 한 사람의 덕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상대의 수용 태도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충고는 보냈으나 상대가 이를 오만으로 되받아들이거나, 혹은 도덕적 수치를 느끼고 단절로 응수한다면, 그것은 우정의 단절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책선은 말하는 자의 태도만큼 듣는 자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유교의 ‘우정’은 단지 정서적 일치가 아닌, 도덕적 긴장 상태를 전제로 한다. 친구를 대하는 마음은 늘 긴장되어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상호 감시와 권면의 자리였다. 조선 시대의 ‘사우(師友)’ 개념이 스승과 친구를 유사한 지위로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친구란 나의 성장을 이끄는 타자이며, 나 역시 상대에게 성장을 유도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이 관계는 동등하면서도 불편하고, 친밀하면서도 끊임없는 반성이 요구된다. 그것이 곧 유교적 우정이다.

책선은 ‘충고’를 포함하지만, 충고의 전제는 ‘겸손’이다. 이기심이나 우월감을 담은 책선은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 따라서 공자는 “자신을 먼저 반성하라”고 했고, 맹자 또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유교에서 진정한 충고는 도덕적 위계가 아니라, 도덕적 평등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말하는 자는 말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듣는 자는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책선은 권력이 되며, 그 순간 우정은 종속의 구조로 전락한다.

현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러한 책선적 우정은 불편하다. 우리는 타인의 충고를 쉽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며, 충고하는 자에게는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라는 의심을 던진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관계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교적 우정은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다. 타자의 충고를 견디고, 내면의 부끄러움을 감수하며, 다시 그 불편함을 통해 자신을 개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도덕 공동체의 핵심이자, 유교적 윤리의 목적이었다.

## 정치와 도덕 사이의 균열: 윤선거의 책선 실천과 예송 논쟁

‘책선’은 원래 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윤리 실천을 보완하는 장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 놓일 때, 책선은 충고가 아닌 저항으로, 덕망이 아닌 도발로 전이될 위험을 내포한다. 윤선거의 삶은 그 경계 위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송시열과의 도덕적 교류 속에서 책선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그 책선은 곧 정치적 갈등의 방아쇠가 되었다. 조선 후기 예송 논쟁은 단지 예법의 문제였던가? 겉으로는 장례 기간의 차이를 두고 벌어진 예의 해석 차이였지만, 그 밑에는 왕권과 신권, 정통과 정변, 도덕과 권력의 질서가 교차하는 정치의 긴장이 존재했다.

윤선거가 속한 서인 정파 내부에서도 예법에 대한 해석은 일치하지 않았다. 송시열은 효종의 장례 기간을 1년으로 보았고, 윤선거는 3년이라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장례 규칙에 대한 논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종의 둘째 아들인 효종의 위계가 적장자인 장자의 예법 적용과 충돌한 사안이었다. 송시열은 종법 질서를 강조하며 왕통의 정통성과 상속 질서에 따른 예법의 일관성을 주장했고, 윤선거는 ‘의리’를 들어 예우의 정당성을 말하였다. 이 대립은 결과적으로 서인 내부의 분열을 야기했고, 윤선거는 송시열과 정치적으로 단절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단절의 본질은 단지 예의 해석 차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책선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정치 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송시열은 예송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적으로 밀어붙이며 국가의 예법을 정하는 권위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반면 윤선거는 개인의 도덕성과 신념에 기반해 의견을 개진하며, 도덕적 책선의 입장에서 예법을 해석했다. 이 차이는 책선이 단지 도덕적 교정의 언어가 아닌, 정치적 정당성 투쟁의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권력의 중심에 책선이 위치할 때, 도덕은 필연적으로 정치화된다. 윤선거가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는 도덕적 책선이자, 동시에 정치적 발언이었다. 송시열이 이를 공적으로 거부하고, 윤선거와 단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송시열은 '정통'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었고, 윤선거의 책선은 그 정통성에 대한 도전처럼 읽혔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사적 우정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선을 주고받는 친구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윤리를 놓고 갈등하는 상반된 입장의 정치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윤선거의 책선은 조선 후기 정치 문화의 구조적 긴장을 반영한다. 도덕과 정치가 결합된 유교 국가에서, 도덕적 실천은 단지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방식이며, 권력자는 언제나 도덕적 권위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송시열은 정치적 권위에 도덕을 종속시키려 했고, 윤선거는 도덕적 권위로 정치적 결정을 교정하려 했다. 그 사이의 균열은 필연적이었다.

윤선거는 예송 논쟁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했고, 10년 넘게 송시열과의 절연 상태를 유지했다. 이 시기 그는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모순을 스스로 감내했다. 자신이 편지를 통해 전하려 했던 책선은 도달하지 못했고, 그의 도덕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게 되었다. 송시열 역시 그 편지를 끝내 열어보지 않았다. 이 장면은 단지 두 정치인의 감정적 결별이 아니라, 조선 유교 정치사에서 도덕과 정치가 얼마나 서로를 불편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윤선거는 다시 정치에 나서지 않았다. 송시열과의 갈등은 그의 정치적 생애를 꺾어놓았고, 그는 은둔 속에서 학문과 성찰의 삶을 이어갔다. 그렇지만, 책선은 여전히 그의 도덕적 신념으로 남아 있었다. 도덕적 우위에서 정치적 선택을 고뇌했던 그는, 유교 국가의 한계도 명확히 체감했을 것이다. 도덕이 권력과 결합될 수 없는 순간, 책선은 더 이상 우정의 도구도, 공공의 언어도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윤리였다.